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9년 9월 15일
제 35 호

• 발행인 : 차인태 • 편집장 : 황인우
• 주 소 :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070-7501-3842

“움직일 수 있을 때 와서 만나야지!”

9월 5일 정례 모임 우중에도 40명 참석



아나운서연합회 차미연(MBC) 회장은 “올 아나운서 대상 시상식은 MBC 상암 신사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 날짜는 미정이지만, 선배님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준비 잘하겠다.”라고 인사했다.

아나운서클럽 3분기 정례 모임이 9월 5일(목) 오후 6시 30분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영신 사무총장 사회로 여의도 열빈에서 열렸다.

차인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길을 해주신 황우겸 고문님을 비롯해 현역까지, 날씨도 굿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나운서 정신을 되살리는 구심점인 클럽 회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수지에 거주하면서도 일찍 도착한 86세 윤영중 회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와서 만나야지.” 하고 말했듯이 우중雨中에도 참석 하니 더 반갑고, 정홍숙 운영위원의 시낭송 ‘유안진의 자화상’ 이 어느 때보다 더 촉촉하게 스며드는 자리 였다.

2면에 계속

다음엔 연말 아나운서대상 시상식에서 만나요 (일시는 추후 공지)

9월 3일 방송의 날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KBS대구 <기억, 마주서다> 대상 CBS 정민아 아나운서상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KBS 대구방송총국의 특집 10부작 <기억, 마주서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방송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1987년 이후 두 번째이다.

한국방송협회(회장 SBS 박정훈 사장)는 9월 3일 ‘방송의 날’ 오후 3시 SBS 상암프리즘타워에서 KBS 한상현, MBC 김대호, SBS 김민형 아나운서 사회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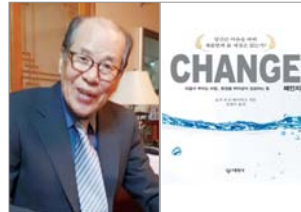
이날 MBC의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연속 보도 등 25편이 작품상, CBS 정민아가 아나운서상을 받는 등 19명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지난 세기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역사의 이면을 조명해 2018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받은 지우진 PD는 “사회적 편견과 질타 속에서도 사실史實을 증언 해주신 출연자들 덕분이다. 항상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매년 열렸던 방송의 날 축하연이 무산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전영우 고문 53번째 책

자기계발서 「체인지」 번역·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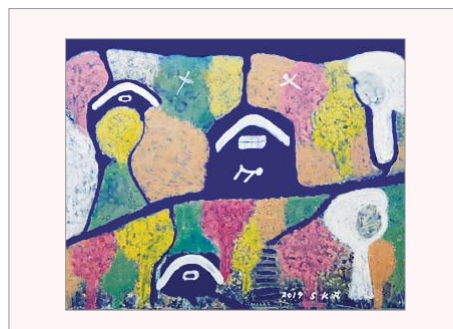


전영우(전 KBS 아나운서실장, 동아방송 부국장·해설위원, 수원대학교 교수) 고문이 자기계발서, 로이 유진 데이비스(Roy Eugene Davis)의 「체인지(CHANGE)」(대원사)를 번역·출간했다. 작년에 펴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이어 53번째 저서이다.

1931년 미국에서 태어난 로이 유진 데이비스는 요가난다의 제자로 1967년 <TRUTH JOURNAL> 잡지를 창간해 영성 교육가로 활동하다 지난 3월 타계했다. 저자는 “내가 처한 상황은 마음 상태의 반영이다. 환경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미래 비전 속에 살아야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며 ‘변화’를 강조한다.

서금량 매니큐어화 제2회 초대전 후원

9월 27일~10월 6일 강남구 신사동 예일화랑



꿈의 마을 Manicure on acrylic panel 35X28, 2019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세계 최초로 매니큐어화 장르를 개척한 서금량(전 KBS, 수필가) 회원이 아나운서 클럽 후원으로 두 번째 초대전을 개최한다.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예일화랑에서 열리는 초대전에는 환상적인 색채로 인간애와 희망적 삶을

그려낸 역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30년 전통의 예일화랑은 미술전문지 「미술신문」을 발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서금량 작가는 눈꺼풀연축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10여 년 전부터 생활 기물에 속건성 도료인 매니큐어로 그림을 그려왔고 2013년부터는 아크릴판 등 평면 캔버스를 사용해 한층 원숙한 작품 세계를 보여 주었다. 이를 토대로 작년 11월 종로구 관훈동 백송화랑에서 첫 번째 화랑 전시회(본보 제32호 zoom인 기사로 소개)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부근인 이정부(전 KBS) 회원은 서금량 매니큐어화를 470회의 인터넷 영상 전시회로 제작, 아나운서 이정부 서금량의 블로그 <남산南山>과 방우회 이장춘 이사의 블로그 <춘하추동방송> 등을 통해 널리 소개했다.

한국수입협회가 제공하는 원자재 수입가격 정보

www.koimaindex.com

주요서비스

- 국제 원자재 일일가격 및 국내외 주요 뉴스
- 산업용 주요 원자재 56개 월평균 수입가격 및 코이마(KOIMA)지수
- 8개 부문별 수입가격 지수
- 월별 원자재 수입가격동향 리포트 발행

한국수입협회 정회원 혜택

수입데이터베이스 무료 이용 (해외 공급선 발굴, 기업신용평가)	해외 수입사절단 항공료 일부 지원, 공동경비 지원	수입상품전시회 참가비 할인, 해외 우수상품 B2B 수입상담기회 제공	수입상품 판로지원, 국내 유통 컨설팅 지원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무역연수교육

회원이입문의 | 02-792-1583 |

코이마지수란?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월별 평균 수입가격을 조사, 종합하여 발표

KOIMA 한국수입협회

KBS 아나운서실에선 김현태 실장, 최동석 현업 팀장, 이영호 아나운서협회장과 지역 파견 근무를 마치고 올라온 45기 김도연, 남현중, 박지원 아나운서가 참석했다. 김현태 실장은 “52시간 근무제에 돌입하며 근무 체계를 개선했다. 전엔 45세 미만 남자가 월 3회 숙직했는데, 이제는 만 52세 미만 남자가 담당하기로 했다. 두 달에 한 번 숙직하며 프로그램에 더 몰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febc 송옥석 협회장은 “신입 8명이 9월부터 지역 근무를 시작하는 바람에 함께 오지 못해 서운하다. 서윤영 아나운서와 클럽 모임에 오면서 행복했다. 장인 어른께서 제5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로 아나운서클럽회보에 나온 제 기사를 보며 ‘가문의 영광’이라 하셨다.”라고 덧붙여 웃음을 주었다.

JTBC 임경진 협회장은 현재 신입사원 모집 중임을 전했고, SBS 윤현진 협회장은 “그동안 저녁 생방송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하다.”라며 와인을 챙겨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계진 부회장이 “클럽 회원 모두가 방송 역사의 주인공이고, 방송박물관의 자료이다. 은퇴 후에도 멋지게 활동하시니 존경스럽다.”라고 했듯 회원들의 근황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근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시 창작, 영어회화를 공부한다는 91세 황우겸 고문은 4.19 때 주도한 ‘방송 중립화 선언’을 소개하며, “개인의 정치관은 달라도 방송에선 중립을 지켜야 한다. 아나운서클럽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기울여달라.”라고 말했다.

미주 소식을 전한 송현식 운영위원의 건배사에 이어, 매번 전주에서 올라오는 권장수 회원은 아침마다 목소리를 좋게 하기 위해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왔으며, 푸치니의 투란도트에 나오는 ‘네순 도르마(Nessun Dorma)’를 선사해 큰 기쁨을 주었다.

처음 나온 문무일(아래 다섯 번째 사진) 회원은 “1968년 MBC에 입사했다. 1988년 미국으로 이민 가 워싱턴동양방송을 설립해 20년간 활동하며 이광재, 김영호 선배와 일했다. 그러다 7년 전 역 이민 와 건국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라며 자기소개를 했다.

모친상을 당한 이해옥 회원은 발인일임에도 감사 인사차 참석해, “2011년 창간한 클럽 회보가 멋지게 뿌리내려 자랑스럽다. 많은 분이 후원해 영원히 발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차인태 회장은 “비가 그쳐 가시는 길이 편안하니 다행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니 자주 만나자.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클럽이 되길 기원하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말로 인사드린다.”라는 폐회사로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자주 만나자!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송옥석 김창옥 문무일 김현태 남현중 김도연 이영호 최동석 박지원 임경진 서윤영 이해옥 이계진 황인우 김상준 주건국 정영희 김채영 안주희 차기정 송현식 윤지영 채영신 박선영 박민정 정흥숙 윤영중 황우겸 차인태 맹관영 이후재 김재익 김규홍

| 알 림 |

고맙습니다

9월 10일까지 입금순

연회비 납부자

정흥숙 엄복영 이후재 성경환 황인용 최승일 1월 23일 익명 이금희 최평웅 차기정 강미란(미주) 윤영중 원창호 임택근 유지현 황인우 정도영 남궁미 홍우창(미주) 차인태 정연호 채영신 김상준 최창섭 박민정 신은경 이인숙(전 MBC) 박용호 남승자 김재익 이병혜 지영서 이계행 이지연(전 CBS) 고창근 반주원 광영신 정영희 윤희자 전찬희 박현선 최화숙 김창옥 정영환 김은휘 백연숙 차인태 송현식 손석기 임국희 전영우 박찬숙 맹관영 조길자 성선경 이병렬 황우겸 김병래 이세진 전우벽 최만린 이숙영 이계진 배유선 이명순 양진수 박선영 조석영 원종배 김규홍 정보영 이장우 이현우 이명희 윤지영 김채영 김경숙 김윤한 양승현(미주) 고평수 안주희 이선희 위진록(미주) 민병연 어호선 전옥수 최운형 김규은 박영웅 이형균 서은선 권혁화 박중세 권장수 최윤락 최선규 김상근 김성길 배덕환 안준순 이정애 김현욱 조진진 오미영 변순복 전응덕 김윤희 이해옥 최영미 이규향 어호선

후원금



차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주 익명 1,000달러



전응덕(전 KBS) 20만 원



박선영(전 MBC) 100만 원

광고 유치



윤지영(전 SBS) 영화사 배 150만 원



차인태(전 MBC) 한국수입협회 150만 원



김동건(전 KBS) (주)아난티 300만 원

축하합니다

박은영(KBS) 9월 27일(금) 오후 7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혼인
김수연(KBS춘천) 9월 1일 KNN 김제현 아나운서와 혼인
김덕기(CBS) 8월 24일 득녀
김지혜(tbs) 8월 23일 득녀
채선아(CBS) 7월 13일 회사원과 혼인

조의를 표합니다.

이해옥(전 KBS) 9월 3일 모친상
심인보(KBS창원) 7월 25일 형제상
한상헌(KBS) 7월 11일 조모상
윤지영(KBS) 7월 11일 시모상
김선동(전 KBS) 6월 15일 장모상

수고하셨습니다

김관동 윤영미 정현조 9월 30일 KBS 정년퇴임
조충현 · 김민정 부부 7월 1일 KBS 퇴사

제56회 '방송의 날' 특집

칼럼

다양한 매체 속 파급력 더 커진 방송언어, 어느 때보다 감시 노력 필요하다



1979~82년 KBS 6기 아나운서
1983~87년 한국일보 LA지사 기자
제10대 한국소통학회 회장 역임

오미영(전 KBS)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

동영상과 소리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통로로써 TV가 오랫동안 누려왔던 특권적 지위가 바야흐로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모양이다. 굳이 '방송'을 통하지 않고도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거의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다매체 다채널 환경, 모바일 기기를 끼고 살며 인터넷과 SNS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TV 방송의 위상 하락을 이끄는 가운데 방송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방송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시청률 반토막', '대규모 적자', '경영 위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일색인 최근의 방송업계를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고 씁쓸하다. 방송사들은 당장 감소한 매출에 대응해 씹씹이를 줄이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 방송언어에 미칠 영향에 생각이 미치면 더욱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 않아도 상업성을 앞세운 각종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방송언어가 마구 사용되고 있고, 그 결과 전 국민의 언어 생활 품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규정에서 방송언어 관련 규정은 제51조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제52조 (외국어 등)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 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뿐이다.

조항 내용은 사실 원칙적인 선언문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방송인 개개인이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시청률이라는 지상 명제에 갇힌 요즘 방송인에게는 이러한 책임 의식이 엿 보이지 않을 뿐더러 기대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방송사 아나운서들마저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어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언어에 대한 규제를 이전보다 훨씬 느슨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경영 압박을 받는 방송 사업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허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방송언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방송언어 파급력 또한 감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양한 매체가 퍼 나르는 방송언어의 파급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 방송사와 관계자들에게 올바른 방송언어의 사용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나운서상 정민아 CBS<좋은 아침 정민아입니다>

앞으로 큰 힘 되어줄 상, 2015년 아나운서클럽상에서 비롯되었다

부족한 제가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을 수상하다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2015년에 '내 길이 맞나?' 고민하던 저에게 '그만 의심하라'며 아나운서클럽상을 주셨던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저는 2005년 입사해 <정범구의 뉴스매거진 오늘> <김현정의 이슈와 사람> <CBS 싱싱경제>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좋은 아침 정민아입니다>의 앵커로서 시사 이슈를 쉽게 설명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은 음악FM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생방송되는 <정민아의 Amazing Grace> 제작·진행을 맡아 3,000여 일 가까이 청취자와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청취자의 반응이 좋아 동시간대 최고 청취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재능으로 청취자들의 삶에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매일 아침 마이크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전한 위로의 크기보다 제가 받은 위로와 기쁨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15년 가까이 방송 생활을 하며 수많은 문을 지나는 기분입니다. 그 문 가운데 한 번도 쉽게 열리는 자동문을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낙담하기도 하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열리는 문을 마주 대하며 보람을 맛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게 주신 이 큰 상은 앞으로 제가 방송 생활을 하며 또 마주하게 될 거대한 문 앞에서 그것을 당차게 밀고 나갈 힘으로 작용할 거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과 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우회 주최 물망비 기념식

9월 20일 오전 11시 KBS 추모공원서 개최 예정

(사) 한국방송인동우회(약칭 방우회, 회장 정관영)가 9월 20일 오전 11시 KBS 추모공원 내 물망비勿忘碑 앞에서 이세진(전 KBS) 회원의 사회로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 7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은 1942년 12월, 단파방송을 들으며 독립 의지를 전파한 박용신, 송진근, 이현, 이계원, 민재호 아나운서와 10명의 엔지니어를 비롯한 150여 명의

방송국 직원 등 350명이 일경에 검거된 독립운동이다. 그 중 독립운동가 허헌, 아동문학가 송남헌 등 56명이 구금되었고 동아방송 기자였던 홍익범 등 6명이 옥사했다.

방우회는 199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이던 아나운서클럽 최만린 고문에게 물망비 제작을 의뢰해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을 잊지 말자는 물망비를 제작하고 매년 가을 방송 선각자의 불굴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방 | 송 | 가 | 소 | 식



아나운서들 프로그램 변동

- 1TV 김도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박지원 <도전 골든벨> <누가누가 잘하나>
- 2TV 김보민 이승연 <무한리필 샐러드>
클래식FM 엄지인 <새아침의 클래식> 말아

병가를 낸 강서는 아나운서 후임으로 45기 김도연 아나운서가 8월 10일부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의 MC를 맡았고, 45기 박지원 아나운서가 9월 1일 <도전 골든벨>의 MC로 첫선을 보였다. 박 아나운서는 목요일 저녁마다 <누가누가 잘하나> MC로도 활약한다.

김보민, 이승연 아나운서는 <그녀들의 여유만만> 후속으로 8월 26일 오전 9시 40분에 첫 방송을 한 <무한리필 샐러드>도 진행한다.

엄지인 아나운서는 7월 22일부터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새아침의 클래식>을 맡았다.

유지철 성균관대 언론학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에 입사한 유지철 아나운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AI 아나운서 등장과 음성 합성 뉴스 전달이 현실화되는 시대에, '뉴스 낭독에 나타난 TTS(음성합성기)와 아나운서의 준언어 특성 비교 및 준언어에 대한 수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주경야독의 결실을 맺었다.



아나운서국 낭독회 <우리들의 읽는 밤> 8월 7일 문학동네와 공동 주최



8월 7일 상암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아나운서국과 문학동네 공동 주최로 낭독회를 개최했다. 2007년에 시작되어 지난해 '우리들의 읽는 밤'이라는 이름으로 새단장한 낭독회는 황현산 문학평론가의 1주기를 추모하며, '평생 읽고 쓰다 간 사람, 황현산을 읽는 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MBC 아나운서들이 고인의 저서에 실린 글을 낭독하고 평론가 신형철, 시인 김민정, 가수 요조 등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말 뉴스데스크> 강다솜 <MBC 5시뉴스> 박경추 구은영 진행

7월 27일 강다솜 아나운서가 <주말 뉴스데스크>의 새로운 앵커가 되었다. 강 아나운서는 <실화탐사대>와 온라인 뉴스 채널 <14F>에서도 친근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2017년 연말에 시작되어 2018년 3월에 폐지되었던 <MBC 5시뉴스>가 7월 15일부로 부활해 박경추, 구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평일 5시부터 25분간 진행되고 있다.

손정은 연극 <미저리> 출연



손정은 아나운서가 7월 14일 김상중, 길해연과 함께 <미저리>에서 보안관 버스터 역으로 출연했다.

MBC는 아나운서들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연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을 권장하고 있다.



정미선,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녹음



정미선 아나운서가 주 독일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의 요청으로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녹음에 참여했다. 작업은 뒤셀도르프 로베르트슈만국립음대에서 레코딩 엔지니어 코스를 밟은 클래식 레코딩 PD 최진 톤마이스터와 함께했다. 독일 마인츠시에 위치한 구텐베르크박물관은 유럽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를 기념해 만든 곳으로 우리의 국보인 대동여지도와 직지심경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김수민 <애니 갤러리> MC 맡아



작년에 입사해 <본격연예 한밤> <열린 TV 시청자 세상> <sbs 뉴스>를 진행하는 김수민 아나운서가 출산을 앞둔 이윤아 아나운서를 대신해 9월부터 <애니 갤러리>의 MC를 맡았다.



기독교 영화 배급해온 CBS 제주서 문화 선교 발전 전략 세미나

CBS가 지역교회연합회 목회자들을 제주 부영호텔로 초청해 9월 3일과 4일 이틀간 문화 선교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영상을 통한 문화 사역의 중요성을 공감한 참가자들은 <영화 1919유관순> 윤학렬 감독의 특강을 들으며 교회가 영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CBS는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근 <바울>, 애니메이션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등의 기독교 영화를 배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용신 <대교 토마토> 제4회 토크쇼 사회



김용신 아나운서가 대교문화재단 주최 대교 어린이TV 주관 '토요일의 마더 토크쇼(토마토)'의 사회를 보았다.

7월 27일 오전 11시부터 대교타워 아이레벨홀에서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육아를 만든다'는 취지로 열린 '토마토 시즌7'의 네 번째 토크쇼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진행했다.



아나운서 제작·진행 <우리말 고운말> TV 방송 시작

아나운서들이 기존의 FM <우리말 고운말>에 이어 TV 프로그램 <우리말 고운말> 제작을 시작했다.

<우리말 고운말>은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되는 우리말을 바로잡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원고, 편집, 출연까지 모두 아나운서가 담당하는 <우리말 고운말>은 tbs TV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김혜지, MBC TV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출연



김혜지 아나운서가 MBC TV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에 7월 4일부터 새롭게 등장했다.

MBC 김나진 아나운서와 2014년 10월 9일 결혼, 슬하에 3세 딸 하연을 키우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아나운서 부부의 일상을 공개한 김혜지 아나운서는 9월부터 연말까지 육아휴직 중이다.

한편 김보빈 아나운서도 출산을 앞두고 8월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안전퀴즈왕 선발대회> 유영선 최지해 진행



산업 현장에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 상식을 주제로 펼쳐진 특집 <안전 퀴즈왕 선발대회>가 6월 16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려 7월 6일 방송되었다. 두 아나운서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노동자의 퀴즈 대결을 침착하고 노련하게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문학산 음악회> 유진영 4년째 진행



유진영 아나운서가 8월 31일, 문학산 정상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열린 '제4회 문학산 음악회'를 진행했다. 2015년, 50년 만에 문학산 정상을 개방한 것을 계기로 열리는 문학산 음악회는 문학과 클래식, 대중음악의 콜라보레이션 공연과 시낭송 등으로 펼쳐졌다.



신입 아나운서 교육 수료 9월 지사 발령



김정윤 탁은아 송영빈 유혜빈 임지현 최다슬 김현진 김수연

2019 공개 채용에서 최종 선발된 신입 아나운서 8명이 중앙사 교육을 수료하고, 영동 김정윤, 대구 탁은아, 포항 송영빈, 창원 유혜빈, 부산 임지현, 전북 최다슬, 광주 김현진, 목포 김수연 아나운서가 지사 발령을 받았다.

〈소망의 기도〉 〈당신을 위한 기적〉 등 공개방송

7월 21일 〈소망의 기도〉 여름 특별 공개방송 '치유'가 김보령 아나운서 진행으로 열렸다. 미국 트리니티침례교회 랄프 색스턴 목사를 대표 강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서울 및 경기권 교회 목사들이 진행자로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전국 900여 명의 청취자들이 함께했다.

8월 27일엔 '최수중 하회리' 부부가 출연한 공개방송 〈당신을 위한 기적〉이 서운영 아나운서 진행으로 열렸다.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지역 교회 목사들이 행사를 준비했고 청취자가 직접 초대해 가족 및 지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제25회 〈2019 가스펠 싱어〉 성황리에 끝나

38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8월 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1,191 참가팀 중 본선에 오른 11팀이 경합을 벌였다. 3,000여 관객의 응원과 생중계를 통한 실시간 인기투표 등을 통해 대상은 팀 부문 '찬양하리'를 부른 제이스, 솔로 부문 '주님의 보혈'을 부른 하은이 차지해 각각 상금 천만원과 부상을 받았다.



팟캐스트 〈리틀 붓다 - 동화 불교 이야기〉 인기



2018년 1월 시작해 그 해 한국어아나운서대상 시상식에서 장기범상을 수상한 팟캐스트 〈잠깐, 붓다 - 바쁜 삶 속 불교 듣기〉에 이어 2019년 5월 새롭게 선보인 〈리틀 붓다 - 동화로 만나는 불교 이야기〉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린이에게겐 밝은 마음을, 어른에게엔 따뜻한 동심을 전하는 〈리틀 붓다〉는 BBS불교방송 아나운서들이 불교 동화를 극본으로 각색해 연기뿐 아니라 연출과 제작까지 맡았고, 네이버 오디오클럽과 팟빵을 통해 매주 목요일 한 편씩 제공하고 있다.



김지현, TV 〈앵글 C〉 진행

김지현 아나운서가 아마추어가 만든 영상 콘텐츠를 소개하는 신설 프로그램 〈앵글 C〉를 맡아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 특별한 체험을 담은 영상을 소개한다.



김부궁, 클래식 프로그램 특집 제작

김부궁 아나운서가 〈FM음악공감〉 '토요 스페셜-2019 퀸엘리자베스 수상자와 함께'를 제작했다. 1위 스텔라 첸, 2위 티모시 추이를 초청해 음악평론가 이준형의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이정민, c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진행

이정민 아나운서가 8월 30일 저녁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c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사회를 맡아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끌었다.



'2019 초중교 미디어교육' 아나운서팀도 6회 참여

아나운서팀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JTBC가 매년 주최하는 '자유학기 및 동아리 미디어교육 특강'에 참여했다. JTBC 아나운서들은 6회에 걸쳐 서울·경기도에 위치한 초·중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소통하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아나운서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송민교, 테니스 4대 그랜드슬램 중계



2019 US오픈 테니스대회를 끝으로, 올해 4대 그랜드슬램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2015년부터 JTBC와 JTBC3 FoxSports에서 활약한 송민교 아나운서가 여성 테니스 캐스터로 자리를 굳혔다. 특히 정현 선수 경기를 정 선수의 코치였던 손승리 해설위원과 함께 분석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취합해 중계함으로써 테니스의 진수를 맛보게 해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시리즈로 풀어보는 한국어 'ㄴ·ㄹ' 발음 1 '입니다' 콤플렉스 - '입니다'는 아나운서가 넘어야 할 관문



김상준 (전 KBS) 부회장, 언론학 박사

한국어 발음 중 '입니다'만큼 어려운 말도 없을 것이다. '입니다'의 오발음誤發音은 표준발음을 포함해서 방언과 외국어식 발음 등 다양하다. 외국어식으로 하는 경우는 영어식인 [임네다]와 일본어식인 [이무니다]가 있다. 방언 유형으로 [임메다]나 [이메다]로 한다. 발음이 어려워서 '니'를 빼고 [임다]로 하거나, '임미~' 길게 하면서 '다'를 빼버린다. '입니다'의 발음 [입니다 im.nida]는 세 음절이 모두 유성음이다. 한국어는 같은 유형의 발음이 겹치면 어려워진다. 더구나 '니'의 발음은 치조음 [ni]가 아닌 유성음이면서 구개음인 [ɲi]가 이어지면서 더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아나운서 대상 교육에서 아나운서는 '입니다' 콤플렉스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입니다'와 같은 유형으로 '습니다' [씀니다]도 있다. 그래도 [씀니다]는 [입니다]보다는 낫다. 예를 들어 '뉴스입니다' [뉴스님니다] 보다는 '뉴스였습니다' [뉴스연씀니다]가 더 쉽다. 그것은 유성음 사이에 [씀]이라는 경음이 들어가서 동음중복에 의한 난이도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필자도 '김상준입니다' 보다는 '김상준이였습니다'가 더 쉽게 느껴진다. '입니다. 습니다'가 어렵기 때문에 '했는데요, 했어요, 했죠' 유형의 종결어미가 늘어났다. 그래서 공손어를 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입니다'의 오발음 유형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 영·미인 英·美人的 [임네다] '입니다' 유형의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영·미인 등 외국인들은 '안녕하십니까?'를 [안녕하십니까]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오래 된 유머를 소개한다. 미국인 선교사가 전도하러 한국에 왔다. 열심히 한국말을 배워서 시골로 전도하러 나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문이 열린 집이 있었다. 대문에는 '개조심'이라고 써 있었다. 선교사는 목청을 높여서 "개조심 씨 계십니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패러디(parody)를 하는 방송인들은 거의 모두 [개조심 씨 계십니까]로 한다. '입니다[입니다]' 발음이 구개음으로 겹쳐지면서 영미인들은 [임네다]로 하기 때문이다. 방송인 중에도 '입니다'를 '임네다' 형태로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구개음 '니'가 치조음 '네'로 변하면서, '있습니다. 했습니다'를 [인씀네다, 험씀네다]로 하는 것이다. 꼭 '네'로 하지 않더라도 구개음 '니'를 치조음 [ni]로 발음하면 '네'처럼 들린다. '개조심 씨'에서 '씨'의 발음도 문제가 많지만 이 부분은 차후로 미룬다.
- 일본인의 [이무니다] 일본인의 흥내를 내는 연기자들은 '입니다'를 [이무니다]로 한다. '안녕하십니까'는 [안녕하시무니까], '감사합니다'는 [감사하무니다]로 발음한다.
- '입니다'를 [임메다]로 오래 전에 기상캐스터로 이름을 날린모 통보관은 발음이 독특했다. 방송에서 그를 패러디 하는 경우, 거의 모든 연기자들이 '안녕하십니까'는 [안녕하시메니까]로 하고, '날씨입니다'는 [날씨메다]로 발음한다. '임메다'와 비슷한 발음으로 '있습니다'를 '임스미야', '했습니다'를 '험스미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 '입니다'를 [임다]로 '입니다'에서 아예 [니]를 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를 [험스다], '있습니다'를 [간씀다]로 하는 것이다. '입니다'가 유성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입니다'에서 '다'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던지는 식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다'는 유성음이 아니라 무기음 '다'이다. 방송에서의 '입니다'는 시청자에게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안긴다는 마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그리고 '입니다'를 발음할 때는 입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워야 한다. 고치려고 마음먹으면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발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고치기 어려워진다. 명창급 소리꾼들도 호남지방에 가면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쪽은 귀명창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귀명창! 아나운서는 말도 잘 해야 하지만 소리도 잘 알아들어야 한다.*

회 | 원 | 동 | 정

차인태(전 MBC) 회장

클럽 고문단 초청 오찬, 울산예고 인문학 특강



8월 27일 정오 서울 서초구 도곡동 한식당에서 고문진 회의를 열었다. 차 회장은 임택근, 전용덕, 전영우, 박종세, 김동건 고문의 건강을 축원하며 선물을 증정한 후 채영신 사무총장과 황인우 편집장도 함께한 가운데 클럽의 운영과 아나운서 직종의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차인태 회장은 7월 11일 오후 4시 울산예술고등학교 인문학 특강에 참여해, 늦깎이를 주제로 라면을 개발한 일본 닛산식품 대표 안도 모모후쿠, KFC 창업자 미국의 커넬 샌더스의 예를 들어 경험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규향(전 KBS)

원음방송 우리말 특강에서 발음의 중요성 강조



8월 31일 오후 2시 원음방송 강남교당 중도홀에서 '우리말 바로 쓰기'에 대해 두 차례 강의했다. 이 회원은 "프랑스말의 아름다움은 글자가 아니라 발음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발음 경시 풍조가 너무 개탄스럽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에서 실시하는 발음 교육이 우리말을 지킬 마지막 보루라 생각한다. 발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르고 고운 말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지연(전 CBS)

6.25 맞아 <아침마당> 출연 등 50년간 쉽 없이 방송



6월 25일 KBS1 <아침마당> '화요초대석'에 출연해 유철종 박사와 함께 진행한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69년 당시 이리CBS(현 전북 CBS)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 회원은 1972년 본사에 올라와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를 맡아 이름을 날렸고, 1979년 프리랜서가 되어 TBC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1980년 <아침마당> 전신인 KBS TV <스튜디오 830>, <열린 음악회> 등의 MC로 활약했다. 1985년 한국방송대상 사회상, 2002년 대통령 표창, 2007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고, 지금도 KBS 제3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과 NS홈쇼핑 <이지연의 명품보감>을 진행하며 50년간 쉽없이 마이크를 잡아왔다.

박선영(전 MBC)

「시간전당포」 발간, 8월 3일 박민정 사회 낙산사 북콘서트 이어 9월 23일 차인태 회장 사회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



(사)물망초재단 이사장으로서 3대에 걸친 분단의 아픔과 70년을 뛰어넘은 국군 포로들의 우정을 그린 현강석의 소설 「시간전당포」(도서출판 물망초)를 발간하고, 8월 3일(토) 오후 3시 30분부터 강원도 양양 낙산사 보타락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귀환국군용사회 한재복 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간전당포>의 저자 현강석(사진 중앙) 작가와

박민정(전 MBC, 사진 왼쪽) 감사의 대담으로 진행한 북콘서트는 '역사의 조난자들을 잊지 말고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을 되새긴 뜻깊은 자리였다. 표지화를 그린 김양명 화가가 참가자들에게 양귀비를 그려준 식전 행사에 이어 대담 사이사이 성우 이윤선의 녹음과 황인우 편집장의 낭독으로 책 본문이 소개되었고, 탈북 여성의 25현금 연주와 시낭송, 남미 음악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물망초재단은 오는 9월 23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차인태 회장 사회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김형석 연세대 명예 교수의 '두고 온 고향'이라는 특별 강연도 준비하고 있다.

이금희(전 KBS)

9월부터 부평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 사회



9월부터 11월까지 부평아트센터 넷째 주 목요일 11시에 열리는 세계문학작품과 클래식 음악의 브런치 콘서트 사회를 맡았다. 또한 6월 26일 오전 10시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17회 성동명사특강에서 '더불어 살며, 서로 헤아리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2016년까지 18년간 <아침마당>을 지킨 이금희 회원은 2007년부터 KBS Cool FM <이금희의 사랑하기 좋은날>의 DJ로 활동하고 있다.

진양혜(전 KBS)

미장센영화제 개막식 사회, <사람이 좋다>도 출연



(주)아모레퍼시픽 미장센 후원으로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열린 '제18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개막식을 진행했다. 영화제는 장르의 상상력을 주제로 59편의 단편영화를 선보이며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펼쳐졌다. 또한 8월 27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남편 손범수 회원과 출연해 25주년을 맞은 결혼생활을 소개했다.

유지현(전 SBS)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변인으로 활약



태권도, 유도, 무에타이 등 20개 종목에 100개국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린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장 이시중 충북도지사)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유 회원은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2015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대변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외신 대변인 등을 지냈다.

김완태(전 MBC)

대한체육회 스포츠 재능나눔 홍보대사로 임명돼



7월 24일 대한체육회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날 행사에서 야구의 양준혁, 체조의 신수지 선수 등과 함께 '스포츠 재능나눔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1995년 입사 후 스포츠 프로그램 MC와 중계 캐스터로 활약하다 지난해 말 퇴사한 김 회원은 올 6월 세븐헌드레드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국민 소통 캠페인 '우리 함께 행복한 쇼'의 '인생다방' (사진)을 진행하고 있다.

오정연(전 KBS)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로 연극 데뷔



<옥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에 탤런트 김승현과 부부로 출연했다. 8월 16일부터 대학로 공간 아울에서 펼쳐진 연극이 9월 15일까지 2주 연장 공연에 들어감으로써 오 회원이 연극배우로서 성공적으로 데뷔했음을 입증했다.

분당 모임, 운영중 민병연 회원 참여



9월 10일 분당 모임에 운영중, 민병연 회원도 처음 참여했다. 19년 전 황우겸 고문의 제안으로 분당 일원에 거주하는 아나운서 출신 5명으로 시작된 분당 모임은 이로써 15명이 격월로 만나 친목을 나누게 되었다.

Zoom-in 이상협(KBS) 「내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해줄래」 (아트앤북) 출간

녹이처럼 낭독하며 감성 일깨워 목소리도 기쁠 수 있어요

이상협 아나운서는 1961년부터 1997년까지 근무한 부친 이규항 회원의 대를 이어 2002년 입사한 부자父子 아나운서로 유명하다. ‘아나운서계의 음유吟遊/음주 飲酒 시인’이라 불리는 그가 낭독의 가치를 대중에게 쉽게 전하고자 지난 7월 독특한 수필집을 펴냈다고 해 KBS를 찾았다. 음악 같은 천상의 목소리를 물려받은 그에게서도 숙스러운 듯 무심해 보이는 인상 너머 섬세한 감성의 결이 느껴진다.

「내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해줄래」는 아포리즘과 유머와 정보와 서정이 버무려진 낭독에 관한 작은 이야기이며 목소리에 관한 인문서이다.

스스로 허드렛글이라 칭했지만, 사랑스러운 작은 책을 집에 와 읽다 보니 금세 밀줄이 가득차 버린다.

“낭독은 노래이며 고백입니다. 평소 내 마음에 닿아있는 텍스트를 목소리에 얹어 나의 마음을 연주하는 일이죠. ... 낭독은 단지 의미만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며, 그 자체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연주해본 적 없는 ‘나라는 악기’ 다루는 법을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낭독, 말의 중요성이 아닌가!



펴낸 동기

‘그림의 스케치, 악기 연주의 스케일-음계音階’처럼 읽기는 말하기의 기본인데, 사람들은 별로 낭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낭독은 몸이라는 악기를 울려서 연주하는 일입니다. 어떤 악기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멜로디를 만들 수 없지만, 인간의 목소리는 가능합니다. 좋은 텍스트를 읽으면 몸이 편안해지죠.

아나운서가 되어 낭독과 내레이션을 많이 하면서, 언젠가는 낭독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론서는 많지만 실재를 다룬 책이 없어, 갖고 있는 생각을 풀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더군요. 작년에 방일영문화재단 언론인 저술 지원에 공모했습니다. 학술서가 아니라 일반인이 낭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필처럼 쉽고 재미있게 쓰겠다는 기획 의도가 괜찮았는지 선정되었고, 지원금을 받으면 1년 안에 책을 펴내야 합니다.

책의 구성

데이 미션, 낭독 일기, Q&A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과정-정확히 말하면 휴일을 제외한 22일간 날마다 낭독을 익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지루할까 봐 사이사이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한 글을 엮고 인터넷을 검색해 많은 분이 궁금해 한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을 보냈습니다.

자기 치유, 힐링이 화두인 요즘, 1인 가구 시대 ‘혼밥’, ‘혼술’처럼 혼자 하는 1인 낭독을 하며 몸을 울려 음성 에너지를 발산하는 일이 얼마나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는지 경험해보길 바랍니다. 아울러 외모 꾸미기엔 열심이지만, 목소리는 타고난 것이라 생각하는 무심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잃어버린 낭독 본능을 깨워주고 진짜 내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낭독대회엔 웅변 유의 낭독이 주를 이루고 낭독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낭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이지요.

입문과 방송 활동

쉽게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자식 간 교육은 불가능한 것 같아, 대학 4학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도 광주 이계진 선배님 댁을 방문해, 쓰신 책을 교재로 1년간 저자 직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시험은 필기에서 떨어졌지요. E채널에서 1년간 저녁 뉴스를 진행하며 준비해 세 번째 만에 합격했습니다.

원래 심야 라디오 DJ를 하고 싶어 아나운서가 되었는데 17년간 주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진행과 낭독을 맡았습니다. TV <학자의 고향> <작은 거인> <추적 60분> <역사저널, 그날> <다큐 3일> <명견 만리>의 내레이터, KBS 1FM <밤의 실내악> <음악 풍경> <밤처럼 고평하게>를 맡았고, 작년 5월부터 <당신의 밤과 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석굴암>을 제작한 윤찬규 PD와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 <원효, 돌아보다>로 제 26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을 수상했고, 직접 기획·제작한 팟캐스트 <오디오 진정제, 무엇이든 읽어보세요>가 지난해 팟빵 문화예술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부자 아나운서

10년간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아버지가 늘 뒤에 서계신 느낌이었습니다. 많이 불편했지만 그 재능으로 아나운서가 되었으니 감사하게 여깁니다. 글쓰기, 음악에 대한 재능, 그 예술적 씨앗을 가지고 발현을 시킨 셈이니까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술만 드신다고 생각했는데, 다도茶道를 즐기며 다구茶具를 완상하고 붓글씨를 모으는 아버지와 함께 수석을 찾으려다니고 음악도 많이 들으며 미감美感이 생긴 것 같습니다.



2009년 연말에는 세종학당 주최로 주일駐日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열린 한국어 발음 교육 세미나에 초청되어, 아버지는 이론을 강의하고 저는 발음을 실연 實演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채로운 이력

고려대 미술교육학과 1학년 때 친구에게 기타를 처음 배웠지요. 알고 나면 뭔가 하고 싶어지는 성미라 작곡을 배운 적도 없이 그 이듬해 1997년 제9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 나가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더그라운드 싱어 송라이터로서는 돈을 벌지 못하겠다 싶어 아나운서로 베이스캠프를 만든 후 2010년 ‘EgoTrip’을 내 제 존재를 알렸습니다. 2013년과 2018년에도 미니 앨범에 곡을 발표했고 쓴 곡들이 밀려 있지만, 시간이 없어 정식 음반 작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12월에 로드 다큐멘터리 <석굴암>의 프레젠테이션을 맡아 1년간 10개국을 돌며 촬영한 에필로그로 라이카의 협찬을 받아 <Time Museum>이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글은 많이 써왔습니다. 나만의 글을 써야겠다 싶어 시를 많이 읽으며 줄곧 시를 써왔지요. 그러던 차 KBS노조가 2009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반대 관련 투쟁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에 몰두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시만 써서 2012년 현대문학상 시부문 신인상을 받아 등단했습니다. 파업이 준 선물이었죠. 그때 아버지로부터 당신이 고려대 국문학과 재학 시절 사서 보신 「현대문학」 창간호를 선물받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시집을 내기까지 잡문은 안 쓰겠다 맘먹고 오로지 시만 써서 작년 5월에 민음사에서 첫 시집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을 출간했습니다.

벼르던 시집을 냈으니 이제는 그동안 써두었던 글들을 모아 다음 책도 준비하려 합니다.

낭독일기 중 ‘문신聞身’이란 글 전문全文이다. “어떤 문장은 너무나 아름다워 오래 되짚어 읽게 된다. 와인 맛을 음미하듯 생각의 혀를 굴리다 한 번쯤 소리 내어 읽고 싶어진다. 목소리로 아름다움을 발화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인간의 발성 기관을 거쳐 문장은 출력되고, 소리가 된 문장은 다시 귀로, 몸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뜻이 된다. 그렇게 문장은 인간의 몸에 문신처럼 새겨진다.” Q&A29-‘무엇이 좋은 낭독인가요.’는 이렇하다.

“친구에게 말을 건네듯 하는 낭독, 자연스러운 낭독, 내가 나의 말을 귀담아들으면서 글로부터 심상을 확장하고, 동시에 그것이 음성으로 반영되는 낭독. 잘 읽는 낭독이 아니라 잘 들리게 하는 낭독.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더 잘 들리는 낭독. 내가 사라지고 끝내 소리도 사라지고 텍스트의 의미만 남는 낭독.”

만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만났다! 글/편집장 황인우(전 KBS)



아난티 코브,
더 이상 외국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ANANTI COVE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1 T. 1877 8448 ananti.kr